‘한글 대장경’ 불사 이끈 이 시대 ‘역경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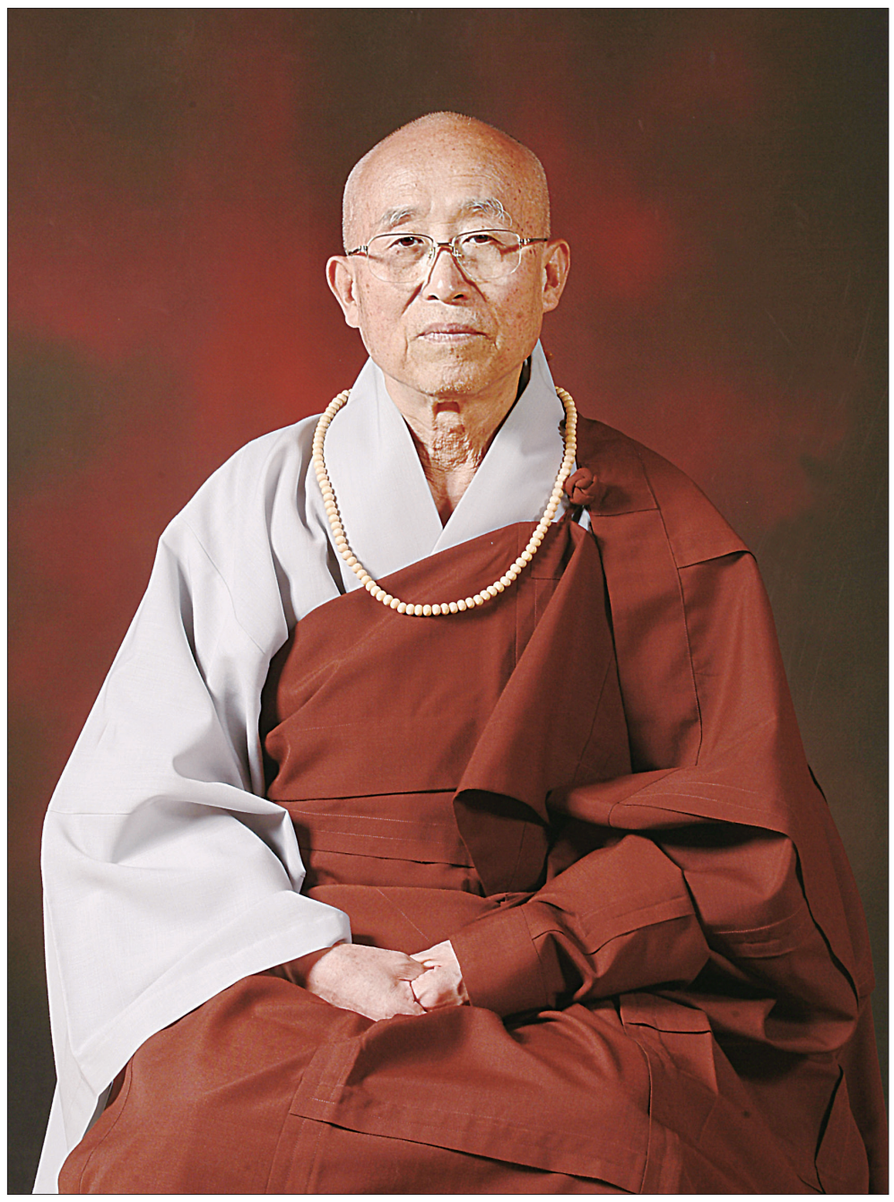
월운 해룡 대강백 주요 약력

1929. 경기 장단에서 태어남
1949. 화방사에서 운허 스님을 은사로 득도. 아직 운허 스님을 뵙지는 못함
1952. 범어사에서 자운 화상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57. 해인사 강원 운허 스님 강석에서 대교 졸업
1959. 운허 스님께 입실 건당 및 전강 받음
1959~1963. 통도사 강원 강사 역임
1963. 경남 마산대(현 경남대) 철학과 졸업
1965.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위촉된 이래 83종 經 역출
1976~1994.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1979~1993. 서울 안암동 중앙승가대학 교수
1983~2000. 불경서당 운영 및 당주
1983~1994. 불교전문통신강원 설립 및 강주
1993~2010. 동국역경원장 취임 및 퇴임
1996~2016. 봉선사 능엄학림 강주
2001. 한글대장경(총 318책) 완간 고불식 거행
조계종 종정예하 공로상 수상
한글학회 외솔상 수상
2003.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2005. 대통령 은관문화훈장 수상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수상
2006. 〈선문염송 · 염송설화〉 번역으로 지훈상 수상
2009. 동방문화대학원대 명예 철학박사
2010. 동국역경원 명예원장 위촉
2014. 생전 일기를 토대로 지난 일을 연도순으로 입력한 회고록 일종 〈자초연기〉 편집
2015. 중앙승가대 · 동국대 명예 철학박사
2022. 〈개정판 능엄경 강화〉 출간
2023. 4월 11일 파주 보광사 수선당 개축 낙성 증명법사
5월 25일 수국사 월초 대화상 ‘삼각산수국사비’ 참관
6월 16일 봉선사 다경실서 원적(세납 95세, 법랍 74년)

[행장]
월운당 해룡 대강백
(1929~2023)

유소년기 사서삼경 · 통감 마쳐
운허 스님 은사 · 화방사서 출가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 활동
팔만대장경 한글화사업 이끌어
2001년, 318책 한글대장경 완간

교리 · 역사 · 의례 · 가람수호 강조
임종 때까지 봉선사서 강편 잡아
사찰 관련 법령도 편집해 강의
83종 經 역출하며 대강백 평가
임종게 “헛소리하는 늙은이 월운”



정리=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화엄종주 월운당 해룡 대강백은 1929년 음력 11월 12일 경기도 장단군 율동면 용산리 339번지에서 부친 김숙(金橚)과 모친 이수춘(李壽春) 사이의 3남 5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5세 때부터 19세가 되던 1945년까지 향리 유릉서당(柳陵書堂)에서 사서와 삼경 및 통감을 마치고, 그 해 경남 남해군 화방사(花芳寺) 객실에서 유숙했다.

21세가 되던 1948년 단옷날 운허(耘虛)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법명 해룡(海龍)을 받았다. 화방사에 머물면서 〈선원제전집도서〉를 비롯한 4집을 홀로 읽고 그 절에 있는 여러 경전을 열람했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동안거를 고성군 상리면 문수암의 청담 대종사 회상에서 마치고, 24세가 되던 1952년 4월 범어사에 주석한 은사 운허 대종사와 상면했다. 당시 〈능엄경〉 흑판강의를 종강한 운허 대종사가 경의 요지를 하문(下問)하자 “보살응기(菩薩應機) 시현미오(示現迷悟) 오타음실(誤墮淫陰)”이라 아뢰니, 운허 대종사는 “미면경정(未免逕庭)”이라 평했다.

뜻은 “부처님 제자 아난이 후세보살들의 수준에 맞게 어리석음을 보이시려고, 괜스레 음실에 떨어지는 꼴을 보여주셨다”인데, 운허 대종사는 “그대의 수준은 아직 안방에는 못 들어오고 마당에 겨우 들어섰다”고 하며 더욱 정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스승 제자의 상면이 끝나고 운허 대종사가 “그대는 나와 함께 경학(經學)을 공부하는 것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을 가자” 하니 이 말씀 끝에 “예”라 대답한 인연이 월운 대강백 평생의 사업이 됐다.

그 후 운허 대종사 문하에서 부처님 일대시교(一代時敎)를 열람하고, 영축산 통도사에서 1959년 5월 16일 운허 대종사로부터 게문(偈文) 한 통을 받았는데, 그 게문에서 월운(月雲)이라는 당호가 유래했다.

示 月雲堂海龍丈室

王舍一輪月
淸光古到今
映輝今付你
好護昭雲林

왕사성의 둥근달 밝은 빛이
예나 제나 비추는데,
그 달빛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니
잘 보호하여 구름 낀 어둠을 밝히거라.

己亥 佛誕之翌
幻翁門孫 耘虛 說

이날로 통도사 강석을 운허 대종사로부터 물려받은 이후, 가는 곳마다 후학을 지도하고 1975년부터 임종 때까지 운악산 봉선사에서 강편(講鞭)을 놓지 않았다. 1964년 운허 대종사는 동국역경원을 개원하자, 그때부터 팔만대장경을 한글화하는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에 일관했다. 팔만대장경 약 3분의1 정도의 번역 출간을 마친 1980년 10월 10일 운허 대종사가 열반에 들자 유야무야되던 〈한글대장경〉 불사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니, 때는 1993년이었다. 동국역경원장을 맡던 8년째 되던 2001년, 총 318책의 〈한글대장경〉 출간기념 봉불식을 장충체육관에서 올렸다. 그 후에도 일찍이 손에 익힌 컴퓨터 다루는 솜씨로 불경 번역으로 소일하며, 틈틈이 제자들을 교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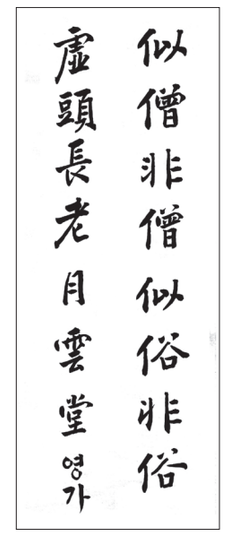
강백께서 평소 강조한 불교 교육 철학은 첫째 교리, 둘째 역사, 셋째 의례, 넷째 가람수호 방면이었다.

첫째, 교리 방면에서 교(敎)로는 〈화엄경청량소〉를 비롯한 강원 이력을 밟게 했고, 선(禪)으로는 〈선문염송〉과 〈경덕전등록〉을 북극성으로 삼았다. 둘째, 역사 방면으로는 역대 〈고승전〉을 비롯해 고려의 〈석가여래행적송〉을 중심으로 삼았다. 셋째, 의례 방면으로는 〈작법귀감〉을 비롯해 손수 지은 〈일용의식수문기〉로 갈래를 잡았다. 넷째, 가람수호 방면으로 저 멀리는 〈백장청규〉를 비롯해 현대의 사찰 관련 각종 법령도 손수 편집해 강의했다.

월운 대강백은 사부 운허 대종사 앞에 현신(現身)한 이래 평소 일기를 썼으니, 이 또한 사부의 일기 쓰고 메모하는 가풍을 쏙 빼닮았다. 86세가 되던 2014년 2월에는 대강백께서 평생 써온 일기장을 토대로 지난 기록을 몸소 연도순으로 입력한 회고록의 일종인 〈자초연기(自抄年紀)〉(A4 총 106쪽)를 편집 완료, 가까운 제자들에게 오탈자를 잡게 하는 것으로 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해 갔다.

그 후에도 조석으로 예불하고 대중과 함께 공양하며, 틈만 나면 〈다경실〉 컴퓨터실에서 고문서를 교정하고 자판으로 입력했다. 몸에 큰 병은 없었지만, 산문 밖을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다. 최근 2023년 4월 11일 〈파주 보광사 수구암〉에 한국과 태국 불교 교류 일환으로 태국 왓포사원 지원으로 수선당(修禪堂)이 신축되자 왕림해 증명공덕을 짓고, 5월 25일에는 은평구 수국사 참배 후 월초(月初) 대화상께서 건립한 〈삼각산수국사비〉 이운(移運)을 참관해 증명하니, 이 걸음이 산문 출타의 마지막이었다.

시적(示寂)하시고 하룻밤이 지나, 한 노 거사님이 쪽지 하나를 건네주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대강백께서는 수십여 년 전 티베트로 성지순례 가신 적이 있었고, 산이 높아 호흡 곤란으로 기절하셨는데 얼마 있다 소생하셨단다. 동행한 거사가 “큰스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라고 위로하니, 스님이 말하기를 “혹시 순례 중 또 기절하면 이렇게 위패 써서 부처님 나라 티베트에서 장사 지내세요”라고 하면서, 쪽지에 한문으로 아래처럼 적었다고 한다.



前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 옮겨 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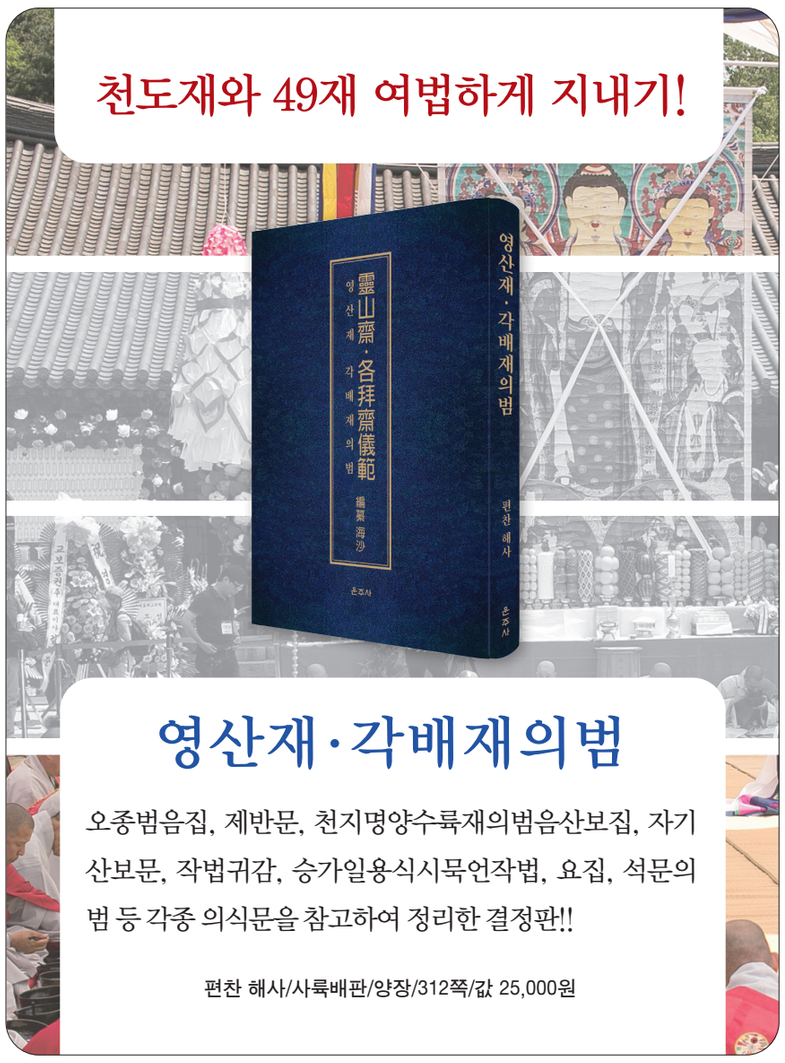
임종게

似僧非僧似俗非俗
虛頭長老月雲靈駕

중 같지만
중도 아니고
속인 같지만
속인도 아닌
헛소리하는 늙은이
월운 영가.


불광산사 성운대사 입적 후 첫 번째 책!
다시 원화한 인생을 열다
빈곤하게 태어나 평생 정규교육을 못 받았으나 스스로 배우며 인생을 개척해 온 성운대사가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지를 인생 여정과 함께 들려준다.
성운대사 지음, 이승준 옮김/사륙배판/208쪽/값 16,000원

열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Nibbāna in Theravāda Perspective
상좌부불교에서 본
열반
이론 연구만으로 열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으며,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음챙김 명상을 해야 한다. 열반에 대한 근본적, 체계적, 실천적 이해를 도모, 제시하였다.
담마삐야 사야도 지음, 정준영·차은숙 옮김/신국판/288쪽/값 18,000원

천도재와 49재 여법하게 지내기!


영산재·각배재의범
오종범음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자기산보문, 작법귀감, 승가일용식시묵언작법, 요집, 석문의범 등 각종 의식문을 참고하여 정리한 결정판!!
편찬 해사/사륙배판/양장/312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